완주군, 청년 목소리 담아 공간 만든다

청년활동공간 '플래닛 완주' 삼례-고산면 이어 이서면도 개소 시동

완주=염재복 기자

청년활동공간 '플래닛 완주'를 조성해 청년들의 교류 물꼬를 터주고 있는 완주군이 공간을 확대해 청년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21일 군에 따르면 플래닛 완주는 청년들의 교류 활동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청년활동의 구심점이 되는 청년 플랫폼이다.

지난 2017년 삼례읍에 1호점(완충지대), 2019년 고산면에 2호점(림보책방)을 조성했으며, 지난해에는 이서면에 3호점(별빛공방)을 시범 운영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삼례읍 1호점을 공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우석대학교 인근으로 확장 이전하기도 했다.

시범운영했던 이서지역의 경우 청년 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민간시설에서 했던 공간을 콩쥐팥쥐도서관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청년들이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공간 조성을 제안했으며, 군은 이서 플래닛 완주의 시작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간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서면 플래닛 완주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며 "올 4월쯤 이서 콩쥐팥쥐도서관에 이서면 3호점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삼례, 고산의 청년거점공간은 각 공간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1호점(완충지대)은 대학생 중심으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취업지원형 프로그램, 청년 누구나 제안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및 청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소모임 육성을 추진한다.

고산 2호점(림보책방)은 청년단체 민간 위탁을 통해 지역청년 및 귀농귀촌 청년들과 함께 농촌의 특수성을 살린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청년공간이 청년활동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며 "공간의 주인인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청년 문화 확산과 참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군, 고위험시설 검체 채취 협력 '효과 입증'

완주군이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검체 채취에 나서는 등 코로나19 철벽차단의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21일 완주군보건소에 따르면 작년 말 3차 대유행 이후 전국 각지의 집단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완주지역 요양시설 등 48개소와 협력체계를 구축, 입소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선제적 검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제로 완주군보건소는 지역 내 양로·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보건소 공중보건의가 검체 채취 방법 등을 충분히 교육한 후 직접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추운 날씨 탓에 선별검사소까지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시설의 간호인력들은 보건소로부터 방호복 등 보호장구와 진단키트를 제공받아 직접 주기적으로 검체 채취에 나서는 등 선제적 방역 대응에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다.

라순정 완주군보건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능동적·선제적 대응만이 감염을 완벽히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재복 기자

완주군의회, 현대차 노-사간 상생협력 주문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장은 20일 완주군수와 함께 현대차 전주공장을 방문, 노·사 양측과의 면담을 추진,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대차 노·사 양측의 적극적인 소통과 상생협력"을 주문했다.

또한, 집행부와 함께 공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1995년 설립, 우리나라 상용차산업 전진기지로써 전북지역 제조업계를 지탱하며 전북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견인해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상용차 수요 감소에 이어 코로나19 파동까지 맞물려 전주공장 가동률이 급감하자, 지역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긴장감 해소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대차 노·사간 소통 합의를 통한 상생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염재복 기자

지역포커스

정읍시, 아열대채소 재배로 농가소득 올려

정읍지역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아열대 채소가 새 소득 작물로 각광 받고 있다.

국내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해외여행에서 맛본 이국적인 음식을 선호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식습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국적 식당과 국제식품 판매장이 증가하고 있어 아열대 채소에 대한 수요와 시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영농환경 개선과 특화작목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득 작목으로 아열대 채소를 시험 재배하고 있다.

정읍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열대 채소는 공심 채와 베트남 갓 배추, 오크라 등 20여 종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태인면 김수연 농가에 겨울철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시설하우스 내부에 다겹 보온터널을 설치해 지역 적응성을 실험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지속된 한파에도 아열대 채소의 저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작물을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어 고소득을 창출하는 데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어려운 허브 향신료들을 연중 재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면서 농가 소득이 전년 대비 40~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연 기술지원 과장은 "영농현장에서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 지역의 특화작목을 발굴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정읍 장명동, 재난기본소득 현장 접수 신속 대응

정읍시 장명동주민센터가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찾아가는 방문 신청에 들어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방문 신청은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교통 취약계층 등을 위해 주민 센터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을 돕는 서비스다.

사전 온라인 접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장명동은 직장 때문에 신청이 어려운 영창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2일 아파트 현지를 방문해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구룡 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직접 마을까지 와서 지원금을 전달해줘서 고맙게 잘 사용 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명석 동장은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이 모든 주민에게 빠짐없이 전달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전했다. /박기수 기자

정읍시, 산림서비스 일자리 사업 추진

정읍시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를 위해 올해 약 13억8,000만원을 투입해 산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산림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총 8개 분야 66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추진할 예정이다.

일자리 분야는 공공산림 가꾸기, 산사태 현장 예방단, 덩굴류 제거단,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 단, 도시녹지관리원, 숲길체험 지도사, 숲 생태관리원이다.

시는 공공산림 가꾸기와 덩굴류 제거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공공성이 높은 산림을 육성하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 대 와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해 산림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도시녹지관리원과 숲길 체험지도 사, 숲 생태관리원을 통해 산림휴양·녹지 경관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참여자 신청을 받아 서류검토와 면접을 거쳐 분야별 최종 참여자를 선발해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재정자립을 지원하는 취지로 참여자 선발 시 취업 보호 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박기수 기자

부안군, 무료 노인의치 사업 실시

부안군은 21일 치아 결손으로 인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노인의치(틀니)사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5명에게 완전의치(틀니), 부분의치(틀니) 시술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신청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와 보건소 방문보건팀 구강보건실로 방문해 접수 하면 된다.

단 과거 보건소에서 의치(틀니) 위, 아래를 시술을 받은 자 또는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에 혜택을 받은 자와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 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 구강 검진 및 상담을 통해 틀니의 용이성, 시술 예후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본인이 희망하는 협력 치과의원을 통해 틀니 시술을 받으면 된다.

부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아 결손으로 인해 고생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의치(틀니)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병하 기자